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☐ 출장목적

- 제75회 TFCF 포럼 참석
- Energy Poverty and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in South Korea: National Legislation, Policy, and Practical Experience 발표

☐ 과제명

- 연구기획

☐ 출장기간

- 2025.10.14.(화요일) ~ 2025.10.16.(목요일)

☐ 출장국가(도시)

- 대만(타이페이)

☐ 출장자

- 고혜진 부연구위원

☐ 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10.14	한국(청주)	-	-	출국
	대만(타이페이)	-	Lin(Joe)	사전 일정 조율
10.15	대만(타이페이)	Chang Yung-Fa Foundation	Steven Nadal 외	75회 TFCF 포럼 참석 한국의 에너지 복지 발표
10.16	한국(청주)	-	-	귀국

2 출장 주요내용

①	사전 일정 안내
일 시	2025.10.14. 16:30~17:00
장 소	Evergreen Laurel Hotel, Taipei 로비
참석자	고혜진 부연구위원(보사연), Mr. Lin 사회복지사(TFCF)
	○ 포럼 장소 이동 방법, 이동 위한 만남 장소, 시간 안내
②	제75회 TCFC 포럼
일 시	2025.10.15. 09:00~17:00/ 만찬 18:00~19:30
장 소	Chang Yung-Fa Foundation 10층 컨퍼런스룸 / Evergreen Laurel Hotel 3층
참석자	고혜진 부연구위원(보사연), Steven Nadal(ACEEE), Mey-Kuei Yu(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), Kuei-Tien Chou(National Taiwan University), Kimberly O' Sullivan(University of Otago), Wen-Jung Hsiao(Taiwan World Vision), Cheng-Bin Chen, Hsiao-Wen Hsieh, Rick Chou 외 각 지사 사회복지사 약 200여 명(TFCF) Zack Hsieh, Ya-Wen Zheng, Miao-Jing Zhang(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)
	○ 에너지 빈곤, 취약성의 정의 - 피할 수 없는 죽음; 겨울철을 중심으로 산출(1990년대 영국), 최근 혹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,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고려 - 지역에 따라서 겨울철의 과부담, 여름철의 과부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. -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 필요 - 기후 위기로,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, 특히 극도로 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성을 정의할 때, 여름철 지원의 필요성 강조 - 미국에서 에너지 빈곤(에너지 부담)은 소득 대비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함. · 에너지 비용이 소득 대비 6% 초과, 10% 초과(매우 심함)으로 측정. · 에너지 빈곤을 소득 대비 비용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, 산출이 가장 쉽고, 산출에 활용할 자료 접근성이 높아 국가 간 비교에도 용이 ○ 에너지 (과)부담을 초래하는 원인 → 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단일하지 않음.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다뤄야만 함. - 지리적 여건: 도시 vs. 농촌 지역, 이상 기후 발생, 지리적 여건에 따른 상이한 에너지 수요 - 물리적 여건: 주택 노후도 및 주택 여건(다가구), 저효율, 활용하는 가전 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

- 사회 경제적 여건: 저소득,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질병, 인종 불평등,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적 여건 제약, 가구원 특성(이민, 아동, 장애인 등)
 - 행동 특성: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비용 납부 등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및 지식 결핍,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, 비용 납부에 대한 제한된 통제력
 - 정책 관련 요인: 정책 접근성, 에너지 비용 부담 체계
- 에너지 복지 정책의 방향성
-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보전을 지원,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불가피.
 - (미국)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25%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와 관련해서는 효율개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, 그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공히 발견됨.
 - 특히 충분한 공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두드러짐.
- 에너지 복지 정책의 대상
- 국외 사례에서 보면, 세입자들은 에너지 빈곤층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 중 하나
 -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세입자들을 포괄하고, 이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있음(효율개선 조치 관련).
 - 한국에서는 에너지 복지의 영역이 협소하나 세입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주거급여나 일부 집수리 사업과 차별화
 -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도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(2년) 두고 있음.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재고 필요 -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2년간 보호
 - 사회주택(공공주택) 효율화 문제
 - 대부분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.
 - 단, 재건축, 리모델링해야 하는 많은 집들;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
 - 뉴질랜드의 경우, 사회주택이 4% 미만(한국도 많지 않은 편), 그 수가 적지만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저효율 문제 대응 필요
- 한국의 에너지 복지
- 국가 비교 맥락에서 한국은 에너지 복지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됨.
 - 에너지 빈곤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,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임.
 - 또한,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음.
 - 특히, 에너지 바우처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음.
 - 한국의 에너지 복지가 가지는 한계, 과제

- 10% 기준(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10%를 초과)으로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은 5% 미만 수준
-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, 상당히 낮은 수준임.
- 하지만,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(이후 폐기된) 에너지 빈곤 목표 제시 이후, 한국의 에너지 빈곤 정책, 에너지 복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함.
-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, 누가 정책 대상인지 불분명함. - 현재 에너지법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하고, 에너지 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, 이들이 에너지 소외계층 혹은 취약계층인지 점검이 필요함.
- 저소득은 분명 에너지 빈곤을 추동하는 요인이지만, 거주지(주택) 여건, 에너지 효율성, 활용하는 가전, 에너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.
-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 복지가 추진되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, 한국의 에너지 복지는 기후 위기 문제와 연동되어 다뤄지지 못하고 있음.
- 소관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된 만큼, 향후 방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한국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유사 중복의 문제는 없는지?
 -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수혜가 가능함.
 -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, 지방정부의 독자 사업,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업 등에서 일부 중첩이 있음.
 - 특히, 에어컨 지원과 같은 물품 지원에서의 중첩이 문제시됨. 이를 조율하는 노력이 부족함.
- 한국 정부가 에너지 복지에 적극적인 이유?
 -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제도를 운용.
 - 산업, 기업, 에너지 공급자들이 부담하는 벌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 운용하기 때문(일반회계 예산이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음.)
- 뉴질랜드의 에너지 복지
 - 뉴질랜드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에너지 웰빙을 목적으로 추진.
 - 에너지 웰빙 목적에서 주거 특성, 환경 요인에 대한 명시적 고려
 - 에너지 웰빙을 정의하고, 에너지 웰빙이 아닌 상태, 에너지 빈곤(energy hardship), 에너지 과사용이 변화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정책적으로 개입
 - 에너지 빈곤층이 주 표적 대상, 에너지 과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입
 - 주택 정책, 에너지 정책 등 유기적 연계 강조
 - 주택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,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가구가 있음.
 - 상기 가구는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. 주거 환경

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함.

- 에너지 복지에서 고평이 제거 등도 중요하게 강조 - 습도가 높은 환경적 여건
 -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비용 보전 정책은 연금 수급자들이 원 대상이기 때문에, 고령자들에 대한 보편적 프로그램의 특징 - 고령자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인지, 에너지 복지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 필요/ 취약한 아동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(Kimberly, O' Sullivan 의견)
 - Kimberly가 에너지 웰빙, 에너지 빈곤 문제 관련 연구 진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,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의 협업 및 대중과의 소통임.
 - 다른 사회 문제보다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.
 - 공공 정책 아젠다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
 - Kimberly의 에너지 빈곤, 에너지 취약성 측정
 -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, 즉각적으로 에너지 빈곤,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 활용
 - (경험) 겨울에 집에서 추워서 떼 적이 있느냐, 집안에서 입김이 나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
 - (thermal confort) 겨울철, 당신이 원하는 정도보다 집이 추운가?, 여름철, 당신은 집이 너무 덥다고 느끼는가?
 - 집안 내 온도 및 습도 측정하는 실측 기계 활용.
 - 뉴질랜드 에너지 복지의 성과
 - 건강 부문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
 - 개입이 없는 경우와 개입에 따른 성과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
 - 에너지 복지를 통해 건강 부문에서의 재정 감소 효과 뚜렷 -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의 질병, 입원, 건강 관련 지출 감소
- 대만 에너지 복지 증진 노력
- 대만아동가족기금, 대만 월드비전 등 비정부기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 진행
 - 한국의 민간 주체들이 진행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이 에너지 비용 지원, 물품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, 주거 환경 개선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
 - 에너지 취약성의 문제가 에너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, 자연재해에 취약한 가구,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서도 발생한다는 점 - 총체적인 주거 환경 개선 지원
 - 정의로운 전환,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, 에너지 복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, 이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
 - 자체적인 조사 수행뿐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증거에 기초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 경주
 - 구체적인 사업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것(깨끗한 물 공급 장치 등)에 더해서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마련(복잡하게 정리되지 않은 전선),

교육 프로그램(보드게임을 활용한 에너지 합리적 사용 교육) 등이 있음.

- 대만의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강조

- 대만 에너지 복지의 한계 / 향후 개선 방향

-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

- 정부, 비정부기구, 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축적한 데이터 공유의 문제 -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욕구가 큰 집단에 우선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데이터 공유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, 데이터 집적에 따른 위험성(데이터 유출, 데이터 소실 등)을 간과할 수 없음.

- 지방정부와의 협업: 에너지 사용의 양상이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 vs. 지방정부에 따라 자원/재정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 심화할 수 있음.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개입은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함.

포럼
사진참석자
명함